



월드컵과 사람들

역시 '축구종가'

사기당한 축구 꿈나무들의 눈물
영 블러어 총리, 앞장서 다투어 줘



축구 꿈나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총리가 앞장서서 달래줬다. 제프 블러어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사기의 희생양이 된 영국 학생들을 위해 독일월드컵 입장권 350장을 급하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연은 이렇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영국의 어린 축구팬 350명은 400파운드(한화 69만원)씩 여행사에 내고 지난 18일 오전 1시 뮌헨에서 열린 독일월드컵 채교-가나전을 보려고 독일에 도착했다. 하지만 경기 시작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여행사 직원들은 입장권 대행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비슷한 시간에 포르투갈-이란전이 열린 프랑크푸르트로 학생들을 데려가려고 했지만 이 경기 입장권도 모

두 팔린 상태였다. 결국 11~16세의 어린 학생들은 눈물을 머금고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이 사연을 접한 토니 블러어 총리는 리처드 카본 영국 체육부 장관을 통해 FIFA에 입장권을 부탁했고 FIFA는 독일월드컵 8강전 입장권 350장을 부랴부랴 마련했다. 또 영국 정부는 어린 학생들이 무료로 이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항공료 등을 모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제프 블러어 FIFA 회장은 "순수한 학생들이 사기의 희생양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FIFA와 축구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뒀다"며 "이번 월드컵이 정말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佛 주치 '소믈리에 콘테스트' 1위 차지한 전 현 모씨

"손님 취향 척척...와인은 내 운명"

올해 한국 소믈리에 콘테스트에서 1위를 차지한 전현모(36) 씨. 해외에서 와인 공부를 해 본 적이 없는 순수 국내파인 그는 프랑스 농수산부 국립 포도주 사무국이 주최하는 소믈리에 콘테스트에서 젊은 유망파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1위에 입상했다.

전씨는 "원래 술을 좋아해 바텐더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술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 중 와인에 특별히 관심을 많았다"면서 "90년대 말-2000년 초 와인 대중화의 기를 서서히 알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와인 전문가의 길로 들어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참 힘들었다는 것. 또 식당에서 손님이 남긴 와인까지 마셔가면서 와인의 맛을 익히려고 애썼다는 것이 전씨 설명이다. 외국 유학은 커녕 와이너리(와인 제조장)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그는 이렇게 독학으로 실력을 쌓아 지금은 대학에서 와인 관련 강의까지 맡고 있다.

독학으로 실력 쌓아 대학 강의

호텔 레스토랑에서 바텐더로 일하면서 11년간 술과 관련된 경력을 쌓아온 그는 2001년 총대의 한 와인 레스토랑에 취직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소믈리에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가 와인에 처음 관심을 가졌을 때는 국내에 와인이 널리 퍼지지 않은 때라 변변한 와인 교육기관도 없었다. 닥치는 대로 와인 관련 책이나 와인 회사의 자료를 뒤지면서 혼자 공부하는 수밖에 없었다. 가장 힘들었던 점이 불어, 이탈리아어 등 생소한 외국어. 워낙 많이 공부하는데

"지식보다 서비스 마인드 중요"

그는 소믈리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와인에 대한 지식보다 서비스 마인드라고 강조한다. 그는 "손님에게 좋은 와인을 추천해주기 위해서는 우선 손님이 원하는 것이 무



엇인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서비스 마인드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와인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그 다음이라는 것. 전씨는 "앞으로도 계속 와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그는 앞으로의 포부를 묻자 "열심히 즐겁게 일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꿈"이라며 소박한 웃음을 지었다.

"세계화 위해 대학 특성화 서둘러야"

오장원 광주여대 총장
중 장춘중의약대 강연



오장원(50·왼쪽에서 두번째) 광주여자대학교 총장이 지난 15~18일 자매 학교인 중국 장춘시 장춘중의약대학교에 초청받아 강연을 했다.

오 총장은 특히 이번 중국 방문에서 지난 4월 장춘중의약대학교 측과 체결한 중의사 자격증 취득 등 교류협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는 장춘중의약대학교가 중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명문 중의약대학교로 인정받고 승격된 것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오 총장을 포함한 미국·일본·캐나다 등 세계 10여개국의 대학 총장단이 참석했다. 오 총장은 "세계화의 영향은 대학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특성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광주여대는 명문으로 부각한 장춘중의약대학교의 상호 협력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 대학이 체결한 협정에 따르면 광주여대 대체요법학과 학생은 '3+3 공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중국에서 실시하는 국가 중의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장춘중의약대학교는 중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준비를 적극 협조한다는 것이다. 또 광주여대 미용과학과와 대체요법학과는 장춘중의약대학교와 공동연구를 통해 천연 약재를 이용한 천연 화장품을 개발·생산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정성필기자 camus@

아드보, 브라질식 애칭은 '디스코'

박지성은 지시우두, 이운재는 레이뉴



아드보카트 감독 이름을 브라질 대표팀식 애칭으로 바꾼다면? '삼바 군단' 브라질 선수들의 이름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간단한 애칭으로 돼있다. 카카, 호비뉴, 호나우두, 카푸, 지다, 시시뉴 등이 그 예다. 워낙 이름이 긴 데다 발음하기도 쉽지 않아 애칭을 그대로 이름으로 등록한 것이다. 아예 자신의 이름을 처넣으면 바로 '브라질 대표팀식' 애칭으로 바뀌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minimalworld.net/BrazilName/brazilian.shtml)가 등장했다. 자신의 이름과 성(姓)을 넣으면 브라질식 이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박지성의 이름을 넣으면 '지시우두(JISILDO)'라는 브라질식 이름이 나온다. 한국팀 주장인 이운재의 경우에는 레이뉴(LEINHO)가 된다. 한국 대표팀을 맡고 있는 디 아드보카트 감독의 이름을 넣으면 '디스코(Disco)'라는 애칭이 나오는 것도 재미 있다.

이름을 넣으면 바로 '브라질 대표팀식' 애칭으로 바뀌는 인터넷 사이트(http://www.minimalworld.net/BrazilName/brazilian.shtml)가 등장했다. 자신의 이름과 성(姓)을 넣으면 브라질식 이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박지성의 이름을 넣으면 '지시우두(JISILDO)'라는 브라질식 이름이 나온다. 한국팀 주장인 이운재의 경우에는 레이뉴(LEINHO)가 된다. 한국 대표팀을 맡고 있는 디 아드보카트 감독의 이름을 넣으면 '디스코(Disco)'라는 애칭이 나오는 것도 재미 있다.

'마음고생' 호나우두 체중 5kg 줄었다



독일월드컵 조별 예선 경기에서 극도의 부진을 보이고 있는 호나우두가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입증하듯 체중이 5kg 정도 줄었다고 현지 언론이 21일 보도했다. 브라질 대표팀 코치진은 이날 "호나우두가 월드컵 개막 때보다 체중이 5kg 가까이 줄어든 90.5kg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동안의 부진을 씻기 위해 훈련을 계속한 결과 체중조절에 성공하고 있으며, 현재는 가장 이상적인 체중인 90kg보다 500g을 초과한 상태"라고 말했다. 호나우두는 지난달 22일 엔트리 제출할 때부터 지난 18일 호주전 사이 3.2kg을 줄인데 이어 22일 일본전을 앞두고 1kg을 추가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代 이어 영공 수호 나선 '빨간 마후라' 부자

6·25 조종사 참전 현창건 운동
아들 승기씨, 현역 공군 소령



6·25 전쟁 당시 전투 조종사로 참전했던 아버지에 현역 공군 전투 조종사로 활약하고 있는 아들. 대를 이어 영공수호에 나선 '빨간 마후라' 부자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투기 조종사 출신의 예비역 대령인 현창건(80) 용(翁)과 현역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로 조국의 영공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아들 현승기(36·공사 42기) 소령 부자가 화제의 주인공이다. 현 용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공군 소위로 임관해 강원도 강릉 제10전투비행전대에 소속돼 F-51 무스탕 전투기를 몰고 총 114차례나 출격했었다. 그는 전쟁 중 누출된 기름이 조종석 덮개유리(canopy)를 완전히 뒤덮는 바람에 한 손으로는 조종간을 잡고 한 손으로는 기름을 닦으며 가까스로 안착하는 등 생사의 고비를 수없이 넘나들었다.

영화배우 손예진
'주얼리 레이디' 뽐혀



텔런트 겸 영화배우 손예진이 보석계 가장 잘 어울리는 연예인으로 선정됐다. 손예진은 '2006 국제보석전시회' 행사의 일환으로 보석 디자이너, 관련학과 교수, 보석회사 대표 등 50명이 선정한 '주얼리 레이디'에 뽑혔다.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무역협회는 "손예진은 보석처럼 맑고 투명한 눈빛을 가진 배우로서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가 보석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제보석전시회는 국내외 보석 브랜드 500여 개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보석전시회로서 29일부터 7월2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2006 광주비엔날레 사전설명회'가 22일 오후 6시 프라도호텔에서 박광대 광주시장을 비롯한 20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위직기자 jrwi@

'2006 광주비엔날레 사전 설명회'

(재)광주비엔날레가 22일 프라도호텔에서 박광대 광주시장을 비롯 200여명의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2006광주비엔날레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오는 9월8일 열리는 2006광주비엔날레 개막 3개월을 앞두고 관람 및 참여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한갑수 비엔날레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핵심 인프라로 인정받고 있는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문화와 지역발전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일본 고베에서 결성된 '광주비엔날레 후원회' 요시다 히로미 회장을 비롯, 고베시 문화관광 과장 등 일본 문화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명예대사로 위촉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김홍희 총감독의 전시주진 상황 설명, 2006광주비엔날레 홍보대사위원 및 비엔날레 가수(김강훈) 위촉장 전달, 정태서 광주은행장의 후원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윤필기자 penfoot@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무료로 실어 드립니다. People@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34 FAX (062) 222-4938, 222-4918

화측

▲최정신(대창운수 전무이사)씨 장남 철호군 손일규씨 장녀 시윤양=24일(토) 오후 1시 오페라하우스 1층 오페라 특실. ▲임우순(세무사)씨 장남 성규군 서길씨 2녀 영순양=24일(토) 낮 12시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김강년(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정수사업소장)씨 차남 도현군 박점동씨 장녀 니영양=25일(일) 오후 1시 명성예식장 특실.

알림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상담=24시간 전화 상담(1588-9191)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일반 면접 상담(가족문제, 자녀문제, 가정폭력, 자살 등) 사전예약

062-223-9191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인권상담=월~금 오전9시~오후5시, 국번 없이 1331 ▲변호사 공재원 법률사무소 토요일 무료법률상담=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후1시 사무실 223-2100 ▲비둘기가지폭력상담소 무료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상담. 직접 상담은 전화나 메일로 사전예약 매 주 목·금요일. 652-1366, nam939@dreamwiz.com 동창·동문회 ▲재광 벌남 35회 동창회(회장 김군재) 모임=23일(금) 오후 7시 갈나무 식당. 266-1823 ▲광주전남 검정고시 동문회(회장 이영천) 월례회=23일(금) 오후 7시 그랑프리호텔. 011-618-2953 ▲광주 남중(무진중) 21회 동창회

(회장 오세중) 월례회=23일(금) 오후 7시30분 무진장 해물탕. 375-3331 ▲북성중 제 10회 동창회(회장 선정식) 월례회=24일(토) 오후 7시 대경. 523-4992 ▲강진계산초교 제 14회 동창회(회장 김상섭) 모임=24일(토) 오후 7시 영암식당.016-604-8492 ▲제 8회 광주 체육중·고 총동문회 가족 단합 체육대회=25일(일) 오전 10시 모교 운동장 및 체육관. 011-602-6428 ▲북성중 제 24회 동창회(회장 송승주) 월례회=26일(월) 오후 7시 동강 사브샤브. 524-4555 ▲북성중 제 27회 동창회(회장 김연중) 월례회=27일(화) 오후 7시 영미오리탕. 527-0249 모임 ▲(사)광주시 실내건축협회 월례회=23일(금) 오후 7시 협의회 사무실. 430-1800 ▲국제로타리3710지구 남광주로타리클럽 '2006~2007년도 신·구회장 및 임원 이·취임식'=26일(월) 오후 7시 광주 무등파크호텔 4층 컨벤션홀. 향우회 ▲재광 봉황 향우회(회장 서한중) 정기총회=24일(토) 오후 6시 동우회관. 351-3392 중친회 ▲의성김씨 광주전남 중친회 운영위원회=24일(토) 낮 12시 신성식당. 232-0760 모임 ▲월산동 성당 자원봉사자 모임=독거노인 방문 각종 봉사 활동 참여자 모집. 월산동 성당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369-7005 ▲청수 조기 축구회 회원모집=45~55세 매주 수·금·토·일요일 오전7시부터 수창초 운동장 017-612-7695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중학교 1~2학년 대상, 속제 지도·보충심화학습·문화·예술·스포츠, 부모 간담회, 가족캠프, 무료급식, 건강관리, 생활일정관리, 학기중 평일 오후 4시~밤10시까지 운영 225-7224 ▲초·중·고 과정 무료 학생·교사모집=월~금요일 오후 7시~10시 30분 광주시 동구 개림동 사랑의 교실, 교사 모집(국어·영어·과학·사 회·도덕 과목) 223-8529, 011-9712-4316 ▲한국문화센터서광주지부(임장정혜영) 회원 모집=홀패션·커피·퀵트·개량한복·손뜨개·꽃꽂이·아동미술·포크아트·가족공예 등, 광주시 서구 내방동 구 신학대 사거리 지하철 상층역 4번 출구 375-7178, 011-640-2559 부음 ▲홍정식(나주시 위생매립소 사업소장)씨 별세 성일(LG화학)·성호·경희씨 부친상 최우석씨 빈부상=발인 24일(토) 시터병원 장례식장 2분향실. 654-4444

넓고 편안한 무등장례식장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구 초전)
대표:(062)515-4488

광주에서 30분 아름다운 청계공원
가족납골묘특별분양
전화 (062)521-1100